제322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2월4일(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특위 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위 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 ····· 1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올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변경이 있어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성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1. 특위 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위 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는 2013년 3월 19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후 두 번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서 이번 달 28일까지로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특위를 소집한 이유는 2월 28일까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첫 번째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이후에 지도부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월 28일까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공청회를 몇 차례 열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또한 이게 과도하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치르게 되면 오히려 국민적 부담이 되거나 또 유치 과정이라든가 유치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치한 국제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러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특히 사후 활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특위에서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국제대회를 치르는 데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걸러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 특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소치동계올림픽 국회 참관단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평창특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전원이 참석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이루어 내는 데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AD카드가 문제였습니다. AD카드는 우리 정부나 우리 조직위원회나 대한체육회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치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발급을 하기 때문에 하계올림픽과 달리 소치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AD카드 발급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정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교문위하고 평창특위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평창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원칙을 정해서 일단은 양당 간사님을 가실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우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육인 출신을 우선하도록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꼭 가셔야 될 위원님들이 못 가시는 일이 생겨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AD카드의 문제였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영 위원님께도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호중 위원님께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희망도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재윤 물론 희망도 안 했지만, 강원도 출신인데도 제가 어쨌든 배려를 못 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나머지 다른 최동익 위원님과 박혜자 위원님을 포함해서 김기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도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AD카드와 관계없이 꼭 가셔야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특위활동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먼저 최동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소치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AD카드 문제 가지고 답변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 AD카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초청 인사로 갈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지 저희가 가 가지고 참관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AD카드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AD카드 말씀하시면 조금 듣기가 거북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공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AD카드의 문제고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AD카드가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문화부나 그다음에 평창조직위나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AD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꼭 가셔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데 기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행정실장님이 상임위원회하고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위원장 김재윤 그걸 좀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야 객관적으로……

○이에리사 위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이에리사 간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올림픽에 입장하는 것, 제가 선수촌장 하고 체육회에 있으면서까지의 경험으로 그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계올림픽의 선수단 규모는 대략 한 450명 정도 출전을 하는데 사람 4명당 각국에 임원 AD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하계올림픽의 경우는 80개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동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문에 났지만 뜻밖에 많이 나가서 한 70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D카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 4명당 하나의 AD카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카잔에 가서도 그렇고 베이징올림픽 때도, 공산권의 활동 영역이라는 거는 국가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동하면 이

동하는 동선을 정보 관리하는 데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아마 소치에 자꾸 테러가 생기고 그래서 엄격한 관리가 돼서 이외의 기타 발급을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산권이 아닌 데는 프리패스라는 카드를 각국에 몇 개씩, 한 네다섯 개씩 줘서 의원님들이 먼저 오시면 며칠 쓰시고 가면 다음 이진이 와서 쓰시고 또 간 다음에 폐회식 때 삼진이 와서 쓰시고, 공산권이 아닌 데는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번에 소치의 경우는, 특히 베이징올림픽 때 좌석을, 제가 본부의 부단장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석에서 선수들 탈의실도 가지 못하게 동선을 완전히 차단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소치도 테러 때문에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더……

체육회나 어디를 두둔해 주는 게 아니라 올림픽은 IOC 그리고 현지 조직위원회에서 엄격한 관리에 의해서…… 그동안에 신학용 위원장님하고 평창특위 김재윤 위원장께서 다 보내시겠다고 간사님들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조직위에서의 발급을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엄격하게, 테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그 카드가 제대로 발급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금 난처하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하게 AD카드가 관리된다는 거를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강창희 국회의장님께 소치올림픽 참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장님께서도 '평창특위 위원들은 가급적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국회사무총장님께서도 예산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D카드 문제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AD카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 AD카드가 없이도 우리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특위를 연장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상임위가 있지만 국제경기는 각별하게 국가적인 대사이고 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에서 국제경기가 첫 번째는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국제경기를 치른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가 과연 이후에도 계속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 또 지금까지도 그리 해 왔는지 이런 걸 오늘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건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아마 없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사실 모든 특위가 2월 말까지로 현재 한시적 연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4개 특위를 추가로 또 의결했지 않습니까, 여야 2개씩 해서? 그래서 특위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특위가 활동은 부실한데 특위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6개 특위—이번에 신설된 거 말고—했을 때 이 평창및국제경기지원특위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 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일곱 번의 회의와 열여섯 번의 국제경기대회 참석과 국제경기대회 준비하는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비교우위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도 자꾸 외부의 시선이 '특위 뭔가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번 2월 말 지나서 다시 또 7월까지 연장할 때 앞으로 국제경기대회도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있지 아시안게임도 안 끝났지, 평창 있지, 그 외에 문경,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경기지원특위가 꼭 필요한 특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의 모습을 보여서 여야 각 당의 원내에다가 좀 강력하게 의견 전달을 하셔 갖고 계속 연장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장과 간사들은 얘기를 좀 해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님들이 보면 중진 의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 당의 원내지도부한테 얘기해서 특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른 동북아특위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한 번에 각 조직위를 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만만치 않게 쓰게 되고 또 준비 작업도 많이 걸리는데, 자체 회의를 많이 한 것도 막 이렇게 카운트가 돼 가지고, 보니까 자체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꼭 우리가 물량 늘리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필요성도 제약이 돼 왔기 때문에 공청회는 제가 볼 때 2월 달에, 위원님들이 다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정 분만 참여한다면 활발하게 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조직위를 상대로 질의할 때 많이 나왔던 사후 활용 방안이라든가 국제대회 유치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책임성 있게 해 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특위는 가능하면 정치적 공방 같은 것, 잠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안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직위도 부담스럽고 위원님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특위가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대회 지원과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런 것인데 그것을 국회에 전달하는 통로가 대단히 미약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는 또 행정부처와 관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문위라 하더라도 기재부나 또…… 안행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옥외광고 같은 것 했었는데 그런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특위 같은 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에 더 주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간사님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회의의 효율적 진행과 관련해서 모든 조직위를 한꺼번에 불러서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고받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 할 때는 2개 위원회씩이라든가 아니면 좀 큰 위원회는 하나씩 해 가지고 한 번 회의 하면 짧은 시간에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입법권도 없고 예산심사권도 없다 보니까 특위의 활동이 맥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열면 조직위에 대한 통제도 해야 되겠지만 무슨 지원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법은 고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당 상임위에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보내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최동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아까 윤 간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시설비가 들어가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국제대회라는 부분은 늘 아웃풋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다 문제됐던 부분이 시설투자와 그 이후 활용방안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렇지 않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잘못 알려진 국제대회에 대한 홍보 이것을 이 특위가 좀 정확하게 짚어 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장방문을 우리가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불러 가지고 보고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보고만 받고 서류로만 했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탁상공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소치 같은 경우 이번에 도시가 워낙 작다 보니까 호텔을 거의 안 지었어요. 관광객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있어서도 호텔이 제일 큰 문제점인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처리를 했느냐 하면 항구다 보니까 배를 다 띄웠어요. 배를 띄워 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배에서 사람들이 잘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호텔을 지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설비와 사후 활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호텔을 거의 안 짓고 배를 띄우면서 해결했던 그런 좋은 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좀 더 현장감 있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권과 법에 대한 제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교문위와의 어떤 자동상정 연계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 중에서 현장방문과 그리고 또 소치올림픽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평창특위에서 한번, 국회의장님께 제가 건의를 해서 끝난 이후에라도 현장방문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제가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과 최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뒷받침해 준다든가 필요한 입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데 행정실이나 우리 사무처에서 나가는 분 안 계시지요? 나갑니까?

○위원장 김재윤 이번에는 우리 행정실에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가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최지 해당 자치단체가 나갈 것이고 문체부에서 나갈 것이고 한데 그것을 각기 보고서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조직위나 소속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이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평창특위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치의 운영방향이나 관리, 시설,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이후에 한번 전반적인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이나 평창동계올림픽 또 기타 국제대회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 조직위는 어쨌든 사후관리 그리고 늘 제가 주장했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는 전혀, 제로 상태입니다. 결국 그것이 국제대회를 하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앙꼬가 빠져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갔다 와서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다른 국제대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한번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실도 가서, 우리 평창특위가 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보고서를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제안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치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우리 특위를 열어 가지고 소치올림픽의 결과와 그리고 또 우리가 인천아시안게임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테니까요, 행정실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위원회, 평창조직위원회, 문화부 그다음 국회로부터 이번에 소치동계올림픽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한번 내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 보면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양당 대표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장을 원한다고 해서 다 연장이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가 연장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양당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공청회를 세 차례 정도 집중적으로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를 하루에 오전·오후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한 이틀 정도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틀이나 삼일에 걸쳐서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또 국제경기대회 이후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양당 간사님이 좀 협의를 해서 주제를 정하시고 또 우리 행정실에서 공청회에 참석할 진

술인들 선정을 함께 하셔 가지고 2월 중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을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宰榮 委員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지만, 기념주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기념주화가 기존 주화뿐만 아니고 화폐까지도 지금, 소위 말해서 찍어 낼 수 있는 근거법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검토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것은 인천아시안게임 말고도 평창에도 조직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윤 알겠습니다. 기념주화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특위 연장에 있어서는요, 소치에서 이제 평창으로 인계가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때 특위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가 예비라면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데,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특위는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래서 저도 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또 일본에서 하계올림픽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인천아시안게임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서 특히 우리 양당의 위원님들이 원내지도부에,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와 양당 간사님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런 지역의 의견들도 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윤관석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정도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큰 국제경기대회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 활동했던 특위를 지금 중단하는 것은 국회의 본연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반드시 연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이나 사후 점검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부족한 활동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위원장님 이하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권성동	김기선	김재윤	김 현
박혜자	염동열	윤관석	윤호중
이에리사	이재영	최동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 진 대
전문위원	박 명 수